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생중계

일 시 2021. 11. 3.(수) 14:00~

공동주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
국회의원 도종환, 박정, 유정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 현장간담회 자료집

□ 간담회 개요

- (행 사 명)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국회 도종환 의원, 박정 의원, 유정주 의원
- (일시/장소) 11.3.(수) 14:00~16:00 / 국립극단(온라인 병행)
- (참 석 자)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 관련 연구용역 수행자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 현장 예술인*(공연, 시각, 문학, 영화 등) 등
 - * 코로나19 상황 고려, 진행(1)·발제·제언자(3), 최소인력(5)은 제외하고 줌(ZOOM) 회의를 이용한 온라인 참여, 일반 참여자는 문체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시청

□ 주요 내용

- (목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9.)으로 구체화 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연계 사업 예산반영 필요성 등 논의

구 분	내 용	비 고
여는 말 14:00~14:05('05)	• 개최 목적 및 참석자 소개	· 진행자 (협치단 정윤희 위원)
인사말씀 14:05~14:15('10)	• 문체부 장관(영상) • 국회의원(도종환, 박정, 유정주 의원 / 영상)	· 문체부 · 국회 의원실
추진경과 공유 14:15~14:25('10)	• 이행협치추진단 활동 및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관련 경과보고	· 발제자 (협치단 김미도 위원)
연구용역 발제 14:25~14:50('25)	•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주요 내용 발제	· 발제자 (중앙대 오창은 교수)
휴식 시간 및 장내 정리 14:50~15:00('10)		
종합토론 15:00~15:50('50)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제언 • 현장 참여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기관) 문체부 협치추진단장(문예실장), 문예위 인력개발 원장(문예위 블랙TF위원), 영진위 사무국장, (현장) 임인자(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남인우(연출가),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원)	· 제언자 (협치단 이양구 위원) · 참석자 전원
마무리 15:50~16:00('10)	• 간담회 주요 내용 정리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 진행자 (협치단 정윤희 위원)

참 고**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명단**

성명	주요경력
김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백서발간소위 위원장
이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정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문화인천네트워크 활동, 미술가
현 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당 대표• 사진가
한승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황승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

추진경과 공유

- 김미도 위원 -

이행협치추진단 경과보고

김미도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1. 주요 활동(2018.8~2021.11 현재)

- 2018.8.20.~2021.11.현재까지 총 33차 회의 개최
- 법제도, 문화행정,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교육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총 31개 과제(85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교육 점검
-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대응 현황 공유

2. 주요 성과(2019.12~2021.11 현재)

- 2019.12.2. “팝업씨어터 공개 사과 이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업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 아르코예술극장 극장장·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전환

- 예술위 ‘팝업씨어터’ 사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건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국립극단 ‘날아가버린 새’ 사건 후속조치 점검, 국립극단 자체 백서 제작 등 국립극단과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공유
- 2021.3.10.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 선언
- 2021.7.28.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사과문 게재 및 추가 입장 발표
- 2020.12~2021.4. ‘사회적 기업사업’ 연구용역 추진 및 완료
- 2021.8.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21.11.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발제

- 오창은 교수 -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오창은(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수)

공동연구원 : 박현선(연세대),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보조원 : 김한주(중앙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



1.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

- 1)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억화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
- 2)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
- 3) 피해자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 4) 예술 현장 및 예술 지원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요구됨
- 5) 공공부문의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민주적으로 강화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4



2. 왜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이 필요한가

- 1)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 2)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록으로 고통의 현장 포착하기
- 3)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료화와 예술가들의 내적 무기력 감 극복 방안 마련하기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 사회적 기억 작업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1) 기억사회학

- (1) '사회적 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획득·인지·배치되는 집합적-사회적 현상으로서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에 접근
- (2)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는 "사람들이 회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곳"임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은 집단 구성원의 공통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해주는 '문화구성체(die kulturelle Formation)'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의미(Gemeinsinn)' 전달

(4) 한국에서 기억사회학의 관점은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으로 행해짐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9

2) 구술사 연구

(1) 구술사 연구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항하여 사회적 기억 구성

(2) 구술사는 ①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 ② 쌍방향적 과정의 특징, ③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행동에 대한 내면의 동기 파악, ④ 문화사, 일상사, 지방사, 부문사 등 유효, ⑤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하거나 치유 역할 수행에 장점을 지님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0

(3) 한국의 구술사 연구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1

3) 기록관리

(1)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은 재발방지와 피해자 회복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2) 사회적 기록은 주체의 다양성,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사건 발생 맥락의 다양성이 포착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2

- (3) 사회적 기록은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를 안고 있음
- (4) 기록관리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고,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의 책임이 강조됨



4. 사회적 기억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3

- 1)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 효과
- 2)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
- 3)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5.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 사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5



16

- 1) 일제 강점기 군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사회적 기억
- 2) 정부 기관의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구술사업
- 3) 한국전쟁 경험·제노사이드 피해자 구술
-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 5)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 기억 기록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7

- 6) 사회갈등·사회시설 폭력 피해자 관련 기록
- 7) 노동운동 관련 기록
-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8

6.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외 사례



- 1)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
- 2) 일본 3.11 재난 참사
- 3)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와 페루의 '진실진실화해위원회'
- 4)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등 사회적 기억화 사업
- 5) '프리뮤즈' (Freemuse) 운동 및 아이치트렌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등 예술표현의 자유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0



7.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1

- 4) 구술 기록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관련 위원회 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필요함
- 5) 피해자 중심의 구술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은 충분한 기획과 자료 수집,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계획되고 보완되어야 함
- 6) 구술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대한 활용은 자료집, 해제집, 온-오프 아카이브 및 다양한 컬렉션, 박물관, 구술생애사 기록집, 전시, 영상제작, 공연 등을 포함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3

- 1) 희생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
- 2) 국내외 피해 사례들에서 구술과 증언, 아카이빙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화는 피해자 자신의 서사화와 적극적인 기억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고통의 치유와 신뢰 회복을 가능하게 함
- 3)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아키비스트들의 개인적, 집단적 윤리성과 전문성, 상호 연대를 전제 조건으로 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2

- 7) 국내외 피해사례들의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시민과 민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절차를 성문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적 실천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함
- 8)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은 소설, 연극, 영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해야 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4



8.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을 위한 제안

1) 사회적 기록작업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까?

- (1) 신청사건 우선 선정
- (2) 희망자 우선 선정
- (3) 이름 없는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 듣기

2)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법적 문제 및 수행자의 필요 역량 분석

3)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문제

4) 사회적 기록작업의 법적 문제

- (1) 프라이버시 침해
- (2) 명예훼손



9. 사회적 기억 사업의 추진 과정과 제안

<표>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 프로젝트단 구성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 1) 기획단계 : 입장 및 범위 설정 → 분석 → 설계 → 평가
- 2) 실행(수집)단계: 심층면담(인터뷰) 전 준비 → 면담진행 → 면담후속작업
- 3) 정리 및 분류 단계 : 등록, 평가, 분류, 기술 → 보존 및 매체 변화 조치
- 4) 활용단계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간행물 발간, 연구사업, 교육 및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기획단계
(사업 개시 1년)

- 구술기록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행자 참여할 문화예술인 모집
 - 신규 수행자 필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구술자료 수집 예비단계: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 구술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 수립
 - 자료관 구축 방안 마련 및 문체부 소장 자료의 사본 제공 방안 수립
 - 1년차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실행(수집)단계
(사업 개시 2~3년)

- 구술기록의 수집
 - 수행자 풀 유지 관리
 - 구술인터뷰 전 준비
 - 구술인터뷰 진행
 - 구술인터뷰 자료 입수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정리 및 분류단계
(사업 개시 4년)

-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 등록
 - 구술인터뷰 자료 평가
 - 구술인터뷰 자료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에 따른 자료의 가공 및 공개
 - 구술자료 보존·활용
 - 사회적 기록 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3

활용단계
(사업 개시 5년)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배포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 간행물 발간, 교육 및 문화콘텐츠 가공·활용
 - 심포지엄 등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4

10.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6

-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8)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간 행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7

- 9)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 10)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 11)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38



제언 및 종합토론

- 이양구 위원 -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제언

이양구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책임 규명 이행계획, 제도개선 권고, 후속조치 권고안 이행을 위해서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이었다.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기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기억·기록·보존·전승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백서 3권 163쪽)

○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제안사항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제안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재원 마련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제안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사회적 기억사업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피해 예술인이 당사자가 되어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연구진이 제안한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그동안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심리 치료나 상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료상담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피해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집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 피해 예술인 사이의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대통령 차원의 명백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연구진이 제안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안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또한 지속될 필요가 있다.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로 되었으나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 예술 실천 프로젝트, 관련 학술 연구 발표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포럼 및 매체 간행

연구진이 제안한,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기 포럼 및 온·오프라인 매체 간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권리보장위원회 및 사업 기금 조성

연구진이 제안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통과되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표현의 자유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사업 기금도 안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10.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장기적으로는 연구진이 제안한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등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당면 과제

위 제안 사항들 중에서 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스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 소재 창작품들에 대한 공모 사업, 관련 학술 연구, 피해자 목소리 아카이빙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의 자유 주간을 통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급하게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기억 책임을 자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예술현장이 회복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행한 과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